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 대성황

선라인·구불길·자전거투어·어촌체험으로 많은관광객찾아 편의시설 완비·피서객들 안전 위한 철저한 대비 마쳐

신선이 노닐던 아름다운 섬,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이 19일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장과 단체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은 풍물패의 식전공연, 개장선포식, 개장식사 및 축사와 환영사, 해상인명구조대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의 자랑인 선유도 해수욕장은 맑은 물과 깨끗한 모래, 수려한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공중하강체험시설인 선유스카이 선라인, 구불길, 자전거투어, 그리고 어촌체험활동이 널리 알려지면서 성수기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시장은 "올해도 선유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오래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섬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욱 친절하고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만드는데 지역주민 모두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내부관광도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 등 주변 환경 조성과 화장실 사위장(무료 개방), 포토존 조성, 안내소 등 관련 편의시설

을 완비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구비해둔 인명구조장비와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올 여름 선유도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마쳤다. 또한 해양경찰서와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해병대전우회와 함께 해상인명구조대를 꾸려 매일 30여명 정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상시 운영해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여름나기 지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최근 열띤 상으로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아동 87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여름나기 지원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아동들이 혹서기 폭염에 대비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롯데몰 군산점(대표 이진우), J어린이집(대표 김효선), 군산사회복지협의회(대표 홍진용) 등에서 후원한 여름이불 35채, 모기퇴치용품 27류음, 모기장 5개와 함께, 한국가스공사에서 후원 받은 선풍기 20대 등을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가정,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어 생활하는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롯데몰 군산점 이진우 지점장은 "롯데몰 군산점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매월 1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며 "의미 있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작지만 정성이 담긴 사회공헌활동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청년 열린 토론회 열어

청년 공약사업 방향 설정... 100여명 참여

익산시가 청소년수련관에서 민선 7기 익산시청 청년 공약사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열린토론회를 열었다. 18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청년 공약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당사자인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유원탁토론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1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회는 참여자들이 ▲일자리(취업, 창업) ▲설치지(청년참여) ▲잘자리(주거안정, 복지) ▲놀자리(청년문화) 등 4개 분야 청년 공약

들을 위한 여러 공약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발표된 의견들이 꼭 반영되어 청년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수요자가 원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지역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 후 실현 가능한 부분은 시정에 반영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평화동 시내버스 환승장 현장방문

정현을 익산시장은 18일, 최근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운행에 따라 설치한 평화동 시내버스 환승장을 방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에어컨 및 화장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했다. 시는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에 따라 마련된 평화동 시내버스 환승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 전기공사를 마무리하고 버스 이용시민들이 급한 용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장실도 설치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 구간 차량통제 및 평화제일아파트 앞 대체도로 우회운행으로 평화사거리 교통혼잡과 시내버스 운행거리 증가로 기존노선 체계로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벼 해충 '먹노린재' 방제 당부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결과 벼 수확기에 큰 피해를 주는 '먹노린재'가 발견돼 관내 벼 재배 농가의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다. 먹노린재는 아열대에서 겨울을 지나다가 6월 초부터 논으로 이동해 9월 말까지 번식하는 월동해충으로, 콩나 녹두 등에 발생하는 노린재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색깔이 검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벼 포기 아래부위에서 벼 줄기의 즙을 빨아 피해를 많이 받은 벼는 마른 잎이 많이 보이며, 어린잎까지 흡즙해 제때 방제하지 않으면 죽음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확량을 크게 감소시킨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말 산업 신성장 동력 육성

도내 5개 시·군, 김제, 완주, 진안, 장수와 함께 공동 선정 특화 전략 수립 위해 우수승용마(금마(金馬)) 도입 고급 브랜드 구축

익산시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산업 특구로 선정되면서 말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유희환 미래농정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말산업 특구 지정은 전라북도 5개 시·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와 함께 공동 선정되어 제주도, 경기도, 경상북도 뒤를 이어 4번째로 특구지정을 받았다"면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말산업 특구 지정 및 활성화가 포함된다는 만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구 세부 사업으로 우리시의 특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우수승용마(금마(金馬)) 도입을 통한 생산 지역 고급 브랜드 구축을 통한 생산 농가 소득 향상을 유도하고, 찾아가는 승마장과 VR 말산업체험관을 공



공승마장 부지와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이어 "또한 생산농가의 순차 및 번식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주기전대학교와 인적 및 기술적 교류 공간을 공공승마장으로 함으로써 관내 승용마 육성 환경 조성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현장간부회의 열고 유기동물 관리에 행정력 집중

군산시는 민선7기 첫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애견인구 천만시대에 발맞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시키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대안 마련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소 '도그랜드'에서 간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파 사업부서 관계자들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시스템 점검 및 보완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군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은 매년 1000여마리로 추산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 2월부터 도그랜드대표(이정호)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유기동물

을 보호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의 치료비 등 운영예산과 보호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며 유기동물 민원처리를 위한 전담인력 충원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유기동물 구조활동 및 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호소 운영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추후 국비확보를 통한 동물복지 보호센터를 신축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물체결 전시시설을 조성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피양을 줄이고 현재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책임양을 높여나간다는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대응 가이드북' 작성·배포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행대응 가이드북'을 작성 배포했다. 익산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0월 주취자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이어 올 들어서도 4월, 6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 즉각 대응처우에서 가이드북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북에는 출동·현장·이송단계별 구급대원의 역할과 폭행 발생시 대응요령, 폭행 피해 전담 팀 운영 관련 사항들이 담겨있다"면서 "현재 소방기본법에서 소방관에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만으로는 폭행을 근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작성 및 배포 배경을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